

프프가무시증 &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


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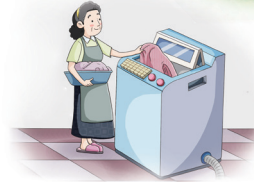


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서 작업 (이하 '야외작업')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합니다.

*특히, 임업 종사 근로자 또는 장년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야외작업

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긴옷을 착용하고, 토시와 장화를 착용합니다.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립니다.
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. 휴식할 때는 돛자리를 사용합니다.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.
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업복은 즉시 세탁을 합니다.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합니다.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


자주하는 질문



Q [프프가무시증] 고령인 사람만 감염되는 것 아닌가요?

- 프프가무시균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**누구나**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Q [프프가무시증]에 걸린 사람은 격리 시켜야 하나요?

- 프프가무시증은 사람간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.

Q [프프가무시증]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?

- 프프가무시증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**예방수칙을 지켜**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Q [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] 진드기에 물렸다면?

-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(며칠에서 10일간) 흡혈합니다.

-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**즉시 병원에서 치료**를 받아야 합니다.

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. 프프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. 질병관리본부 www.cdc.go.kr

문의처: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TEL : 052.7030.641
www.kosha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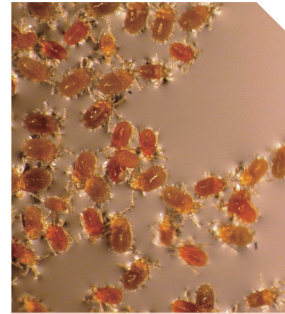
쯔쯔가무시증 이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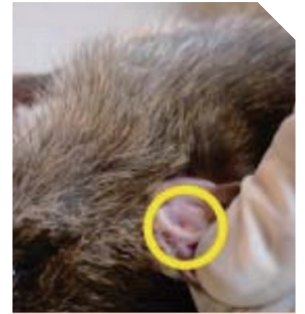
- ▶ 쯔쯔가무시증은 8월 하순부터 11월에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.
- ▶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.

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	산림,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,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
	농업, 임업 근로자 등
	조경 및 제조작업자 등

▶ 쯔쯔가무시 균 *O.tutsugamushi*



털진드기 유충



풀숲 속 들쥐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이란?



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'작은소참진드기'의 활동시기(4~11월, 집중발생시기 5~8월)에 야산이나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- ▶ '작은소참진드기'에 물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,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

비흡혈 상태



흡혈 상태

흡혈 여부에 따른 형태(암컷)

Q & A

- '작은소참진드기'는 주로 어디서 서식하는가요?

-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서 서식하고 있으며, 시가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-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서식합니다.

- 치명률은 얼마나 되는가요?

- 약 6% (평균 10%이하) 정도로 확인 됩니다.

국내의 경우 '작은소참진드기'가 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0.5% 이하로 분석되고 있음.

쯔쯔가무시증 &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증상은?



쯔쯔가무시증	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부발진 • 진드기로부터 물린 상처 (검은딱지) • 38°C 이상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 • 심한 두통이나 기침, 근육통이 지속 • 폐렴, 심근염, 뇌수막염 등 합병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인불명의 발열 (38°C 이상) • 소화기 증상 (구토, 설사, 복통) • 두통, 근육통, 신경증상 - 의식장애, 경련, 혼수 • 림프절 종창, 호흡기 증상 (기침) • 출혈증상 (자반증, 허혈 등)
<p>“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할 수 있음. ”</p>	

